

청년농부 이태규 씨(여정농원)

9월 전면 개통! 앞둔 수인선(水仁線).

폐선 이후 25년 만의 개통!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중심지 안산. 수원까지 21분 돌파

관련기사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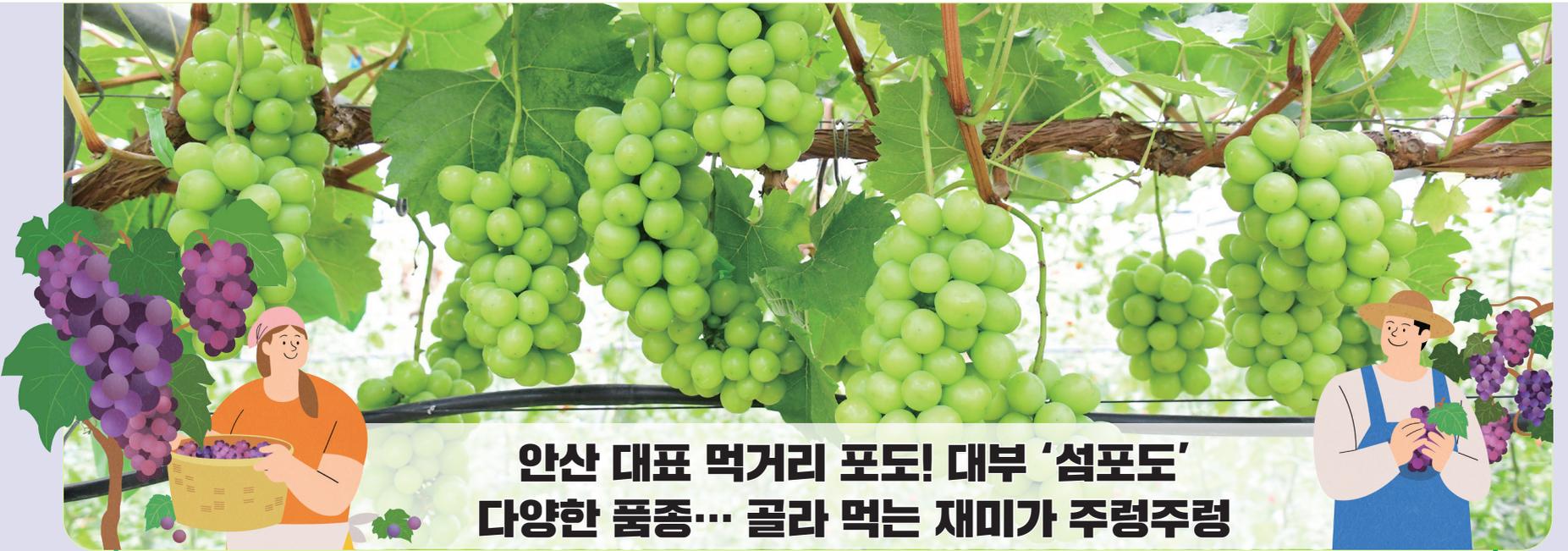
02 특집① _ 대부도에서 수확한 9월의 맛! 샤인머스켓

03 특집② _ 안산에서 기른 제철 농산물로 우리집 식탁을 바꾸다

12 기 획 _ 한적하게 여행해요~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14 살맛나는 안산 _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수달이 산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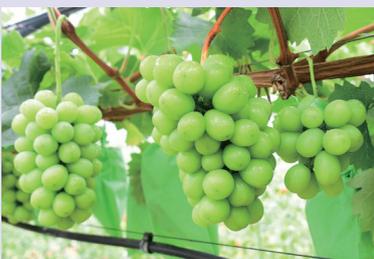




안산 대표 먹거리 포도! 대부 '섬포도' 다양한 품종... 골라 먹는 재미가 주렁주렁

늦여름, 달콤한 포도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계절이 왔다. 포도하면 떠오르는 대부 섬포도는 육지 포도보다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대부도 대표 특산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부도의 바닷바람과 뜨거운 햇빛, 큰 일교차, 미네랄 풍부한 토양 등이 빚어낸 고품질 포도다. 이중에서도 8월 하순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샤인머스캣은 벌써부터 매니아 층이 형성될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부 섬포도의 맛을 보여줄 샤인머스캣에 흠뻑 빠져보자.

샤인머스캣 - Shine Muscat



샤인머스캣은 청포도종으로 과육은 단단하고 식감이 아삭한 것이 특징이다. 달콤하고 향긋한 머스캣 향이 강해 씹을수록 망고와 같은 향이 난다. 일본이 원산지인 샤인머스캣,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처음으로 식재돼 2012년 이후 로열티 없이 재배와 수출할 수 있는 정식 권리를 획득했다. 샤인머스캣의 수출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특히 껍질이

얇고 씨가 거의 없는 샤인머스캣은 일반 거봉 포도에 비해 수출 가격이 약 3배 이상 높은 고급 포도로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다. 수확기는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이다.

일반적인 캠벨 포도의 당도가 14~16brix(브릭스,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인 것에 비해 샤인머스캣은 당도가 18~20brix로 높고 산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청포도로 과육은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으며 즙이 많고 유럽 포도에서 맡을 수 있는 머스캣 향이 강하다.

샤인머스캣은 비타민C, 비타민K 등이 함유돼 있어 면역력 개선과 피부 미용, 감기 예방, 뼈 강화 등에 탁월하다. 또 마그네슘, 철분, 칼륨 등이 풍부해 빈혈 개선에도 좋다.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도 함유돼 있다.

대부 섬포도의 왕! 샤인머스캣 200box 한정판매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자!

판 매 일 : 9월 18일(금)

판 매 가 : 4만원(2kg)

구매방법 : ① 네이버 '마켓경기' 검색 후 메인 배너 클릭!
②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포도' 입력



9월에 맛 볼 수 있는 다양한 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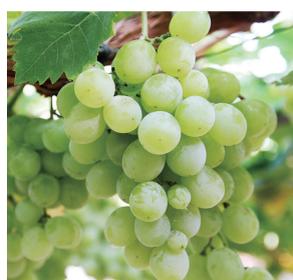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캠벨얼리'

시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포도. 당도와 향을 위해 중량 450g 이하로 수확



씨가 없는 거봉 '자옥'

일반 거봉 품종보다 껍질이 얇고 달콤하다. 적절한 산도와 당도 모두 잡은 거봉



청포도의 여왕 '머스캣 오브 알렉산드리아'

기원전부터 재배된 역사 깊은 품종. 특유의 머스캣 향과 상큼하고 깊은 향이 난다.



일명 사과포도! '베니바라드'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 껍질이 얇고 대추처럼 길쭉한 모양



꽃 내음이 나는 '루비오꾸야마'

브라질에서 첫 발견. 홍색품종 중 가장 인기 있는 품종

보관 방법

종이에 싼 채로 한 송이씩 비닐봉지에 담거나 신문에 싼 후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한다.

구입 문의

대부도 여정농원 (010-5509-8860)

차원이 다른 신선함,
믿고 사는 안심 먹거리
청정도시 안산에서 재배한
제철 농산물을 만나다



안산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
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



먹거리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 푸드(Local Food)'를 구매해 보는 건 어떨까? 별도의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제철 농산물을 우리 집 식탁에서 곧바로 즐길 수 있다. 싱그러운 음식으로 넘쳐나는 로컬 푸드 밥상을 통해 농가를 돕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착한 소비에 동참해보자.

안산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안산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은 2015년 안산에서 가장 처음 문을 열었다.

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은 초기 50여 농가가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입점 농가가 25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성장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은 지역 생산자가 갖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다.

지역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품과 가공식품 등을 제공한다.

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은 250개가 넘는 입점 농가 중 중소농가(소득 기준)의 참여 비율이 40%나 된다. 이곳에서 농산물 판매를 원할 경우 참여를 희망한 농민은 3일 간 현장 견학, 출하 기본교육 등을 이수해야만 출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농민은 직접 포장해 온 농산물을 공판장 경매 시세와 소비자 가격 등을 고려해 직접 가격을 정한다. 이는 로컬 푸드 직매장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시중 가격보다 평균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다.

로컬 푸드 직매장의 가장 큰 매력은 '당일 수확, 당일 판매'라는 점이다. 신선 채소에 한해 당일 수확, 당일 판매 원칙을 적용하며 품목마다 정해진 진열 기간을 두고 유통성 있게 판매한다.

이곳에서는 평균 300여 품목에 5000개(수량) 이상의

농산물을 취급한다. 인기 품목은 열무, 열갈이, 싹 채소 등 신선 채소다. 안산시 상록구 특산물인 상록수된장마을에서 만든 청국장과 대추방울토마토도 인기다.

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은 신선함과 저렴함은 물론이고 안전성까지 갖췄다. 경기도 등의 지원을 받아 연간 300회 이상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1년 내내 제품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김용식 점장은 "장터와 같은 푸근하고 끈끈한 '정(情)'이 살아있는 매장으로서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로컬 푸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신선함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 치: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90-1
(본오동 각골사거리 고가 차도 옆)
영업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휴 무 일: 매년 1월1일, 설·추석 연휴
5월1일 근로자의 날
문 의: 안산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031-437-5237)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8년 2월 문을 열어 올해로 23년째 성업 중인 안산지역 대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인접해 농수산물 반입이 원활하고 시내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곳이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한 곳에

서 모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채소류, 과일류 등의 청과부터 선어, 건어, 활어 등 수산물까지 각종 농수산물이 모여 있다.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청과동, 채소동, 수산동, 방앗간, 농산물 검사소 등 10개가 넘는 시설물도 갖췄다. 특히 공산품을 취급하는 식자재할인마트가 지하에 자리하고 있어 대형마트 못지않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새벽 경매 등으로 식품 신선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 내 저온저장고와 냉동 창고, 제빙

시설 등을 갖춰 신선도 높은 야채와 과일 등을 공급,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각종 농수산물은 물론 생필품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보자.



위 치: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312
영업시간: 청과 및 수산 부류 - 오전 8시~오후 5시
안산식자재 할인마트
- 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 일요일 오전 6시~오후 9시
휴 무 일: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
※ 도매시장 특성상 경매 및 유통환경 여건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수많은 기억 간직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우리나라 유일 협궤열차, 수인선(水仁線) 25년 만의 전 구간 개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잇다.



수인선 전면 개통! 안산에서 수원까지 21분 돌파

다가오는 9월12일, 인천과 수원을 50분대로 잇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 전면 개통한다. 인천에서 시작해 안산을 지나 화성과 수원으로 이어진다. 수인선 폐선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 ‘수인선 전 구간 개통’ 의미는 남다르다. 1973년 송도~인천 구간이 처음 폐선한 후 48년 만에 수원~인천(52.8km) 전 구간이 복선 전철로 재개통하기 때문이다. 수인선은 1995년부터 시작한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라 1단계 오이도~송도(13.1km) 구간이 2012년 6월 개통했고 2단계 송도~인천(7.6km) 구간이 4년 뒤인 2016년 2월 개통했다. 2020년 9월 3단계 수원~한대앞(19.9km) 구간 개통으로 25년 만에 수인선 전체 구간이 모두 연결된다.

안산은 한대앞~오이도 구간인 기존 안산선(4호선)을 공유하면서 3단계 구간에 신설 정거장으로 사리역 1개소가 설치됐다. 수인선 전 구간이 연결되면서 전철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 인천에서 수원까지 55분 만에 도착한다. 기존 90분 거리를 35분이나 단축했다. 또한 한대앞역에서 수원역까지는 21분이 소요된다. 안산은 물론 수원, 인천, 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철도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슬픈 역사 지닌 수인선

1937년 8월 개통한 수인선은 수원, 안산, 시흥을 지나 인천을 오가는 총 연장 52km의 협궤노선이다. 일본



이 경기 동부지역의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건설해 58년 동안 화물과 여객 수송을 담당했다. 이후 재정상 어려움에 직면한 수인선은 송도~인천 구간이 1973년 처음 폐선한 데 이어 1994년 한양대~송도 구간과 1995년 수원~한양대 구간이 순차적으로 열차 운행을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추억의 공간에서 친환경 공간으로

한 때 추억과 낭만의 협궤열차로 기억되었던 수인선은 기존 철도가 통과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단절 등의 피해를 없애고자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수인선이 지나는 안산(2.0km), 인천(0.3km), 화성(0.5km), 수원(3.3km) 등 지하화 구간 노선 상부 공간을 공원화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거듭난 수인선을 즐겨보자.

신설되는 5개의 역의 의미

사리역_아련한 포구의 추억
사리는 편의상 일리, 이리, 삼리, 사리로 부르다가 지명으로 굳어진 이름이다. 옛 수인선 시절, 역 가까이 해안선과 사리포구가 위치했으며 경기도내 서해안의 3대 포구로 성장하기도 했다.

야목역(화성)_들이 넓고 고즈넉함
야목리는 들이 넓고 산기슭에 초목이 우거져 소를 방목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해 붙여진 지명이다.

어천역(화성)_들판을 흐르는 맑은 물
마을 이름처럼 맑은 물이 흐르던 동네인 어천리에서 유래했다. 향후 인천발 KTX가 개통하며 어천역은 KTX 정차역이다.

오목천역(수원)_오목천리 지명에서 유래
오목천리는 오목한 곳을 따라 흐르는 이 지역의 하천 모습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고색역(수원)_두레의 공동체 정신
고색골이라 불리던 수원 도고산 아래 마을지명에서 유래했다. 고색은 바닷물이 범람해 땅을 잃은 농민들이 옛 고향에 다시 돌아와 마음을 가꾸고 살았다고 해 생겨난 지명이다.

수인선 구간: 인천 - 송도 - 송의 - 송도 - 원인재 - 연수 - 남동인더스파크 - 호구포 - 인천논현 - 소래포구 - 월곶 - 오이도 - 달월 - 정왕 - 신길 - 온천 - 안산 - 초지 - 한대앞 - 사리 - 야목 - 어천 - 오목천 - 고색 - 수원



안산으로 '역사 인권 기행' 떠나자!

역사 인권 해설사와 함께 인권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

역사인권기행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생명 존중 등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여행이다. 코스는 안산시청에 설치된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대부도 선감학원과 고려인마을 뗏목을 탐방하고 마지막으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방문한다. 참여자가 직접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안산의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2011년 12월 14일 민간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된 시민 모금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로 확산됐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운 동상이다. 안산시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시청 분수대 앞에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 평화의 소녀상의 숨겨진 의미를 아시나요?

- ① 불규칙하게 잘려나간 단발머리 :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
- ② 할머니의 그림자 : 할머니들의 원망과 한이 서린 시간의 그림자
- ③ 작은 새 :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 ④ 소녀상 옆 빈 의자

: 세상을 떠났거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를 위한 자리



▣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고려인지원센터 '너머'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려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다. 독립운동과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의 비극, 타국에서 갈 곳 없는 이들의 삶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에서 공감할 수 있다.



▣ 선감역사박물관(선감학원)

선감역사박물관(선감학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의 섬, 선감도에 위치했던 소년수용소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 10월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세워져 1982년까지 40년 동안 운영됐다. 부모가 없거나 집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8~18세의 소년들을 전쟁에 동원할 병사로 만들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 와 사회와 분리시키고 노역을 시켰다.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년 아동 인권이 무시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던 곳이다.



▣ 단원고 4·16 기억교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있던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의 교실과 교무실을 공간기록으로 보존한 공간이다. 2014년 4월 16일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버린 단원고 2학년 1반부터 10반과 교무실의 책상, 의자, 칠판, 게시판, 사물함 등의 박물관과 게시물, 학사력, 달력과 같은 비전자 기록물로 구성된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다.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닌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갖고 있는 공간기록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 안산 '역사 인권 기행' 프로그램 안내

운영기간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총 20회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예정

운영대상 초등학교 5~6학년 / 청소년 / 시민

운영코스 평화의소녀상(안산시청) ▶ 선감역사박물관(선감동) ▶ 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머(선부동) ▶ 단원고 4·16기억교실(고잔동)

안내사항 회당 20~25명 참여, 선택에 따라 코스 변경 가능 **참가비** 무료(점심식대 본인 지참) **문의** 615 안산본부(031-411-6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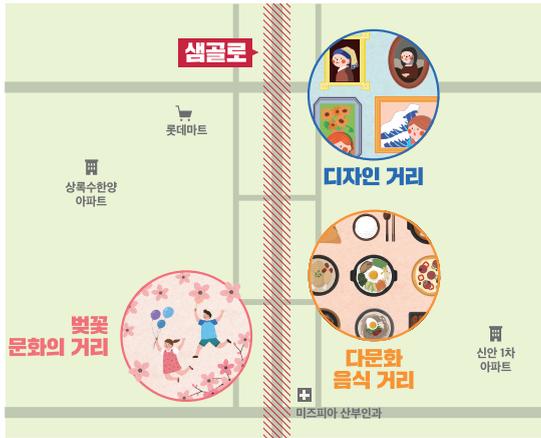
샘골로 먹자골목, 코로나19 극복하는 희망의 명소로 재탄생 경기희망상권프로젝트 최종 선정!

상록구 본오동 샘골로 골목상권이 경기희망상권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2021년 12월까지 각종 개선사업을 거쳐 희망의 명소로 재탄생한다.

2019년부터 시행한 경기희망상권프로젝트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안산시는 올해 5개 지자체가 응모한 프로젝트에 7월 현장평가를 거쳐 경기희망상권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상록수역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샘골로 골목상권은 본오동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곳이다. 과거 반월공단의 직장인들과 가족단위 소비계층이 유입되는 안산시 최고의 상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안산시는 앞으로 상인회 등과 소통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의 종합적인 상권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벚꽃나무 식재와 경관 조명 구축 등 ‘거리환경 개선’과 트릭아트 등 디자인을 접목한 ‘특별할인구역 구축’,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방지’, ‘상인 교육을 통한 공동체 구성’ 등을 진행한다.



또 샘골로 골목상권을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다양한 이벤트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 예정이다. 낮 시간대에는 유아를 동반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저녁시간대에는 직장인과 가족 등 주변도시에서도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시 인 구유입 상권’을 조성한다.

엄동현 샘골로 골목상권 상인회장은 “샘골로 골목상권은 상록수역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코로나19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부진을 겪는 상인들의 어려움이 큰 곳”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쫄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과거의 영광을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84)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안산시가 지원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맞춤형 한의 진료 받으세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편안하게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지난 7월부터 안산시한의사회와 함께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안산시한의회 소속 9개 회원사가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진료를 하는 것이다.

진료 내용으로는 ▲건강 상담 ▲진맥 ▲침술 ▲뜸 등이다. 특히 진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어드리는 등 맞춤형 통합 방문 서비스이자 돌봄 기능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한의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고관절과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하고 나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정신적 우울감도 있었는데 방문 진료를 받고 나서 건강관리에 욕심도 생기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중 요양병원 장기입원 퇴원 노인과 단기입원 지역 복귀 노인, 만 75세 도래 고위험군, 다제약제 처방의 복합 만성질환 노인 등 통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 돌봄 안내 창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3418)



건강상담



진맥



침술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다운카드,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 부착

안산시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다운카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자법 제5조’와 ‘경기지역화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QR코드 표기’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점자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성한 신청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로 보내지며 작성 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신청자는 스티커를 받으면 다운카드 IC칩과 바코드를 피해 스티커 방향을 확인한 후 카드 위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점자스티커는 6글자까지 가능하며 받침이 많은 경우 6글자 제작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문의 : 경기도장애인지원센터 누리(1522-0420)

안산화폐 다운의 10%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마음껏 누리세요

안산시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다운의 10% 할인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다운 1인당 구입한도는 월간 60만원, 연간 720만원이다. 카드식은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내려 받아 신청(만14세 이상 가능)하거나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구입할 수 있다. 지류식은 관내 모든 농협에서 살 수 있다.

시가 20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운의 발행량, 카드 및 지류 통계자료 분석, 이용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다운이 예산 투입 대비 작년에는 약 15배, 올해는 약 20배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시는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다운을 통해 유통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921)

시민 안전 최우선! 한층 더 강화된 안산형 방역체계

**전국 최초!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해외 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2020년 9월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의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격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안산시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아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산형 방역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시가 오는 9월부터 발동하는 행정명령의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인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 국가 입국자다. 이들은 안산시 거주를 원할 경우, 시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14일 간의 격리생활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 140만원(1일 10만원)은 입국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격리비용 부담과 시설격리 절차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비용은 숙박비와 식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1일 기준 금액을 결정했다.

시설격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입국자 중 비자타입이 A1(외교), A2(공무)이거나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 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8월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p>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p>	<p>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p>	<p>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p>
<p>다중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p>	<p>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p>	<p>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집단발생 지속 지역: 원격수업 이 외 지역: 밀집도 1/3 유지, 고등학교는 2/3 유지 어린이집·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p>

고위험 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이 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안산의 영웅들, 힘내세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선물' 같은 시간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지역 예술 작품'



오늘하루도 고생했어요 공연보루(러) 오세요 보노마루로

관람객 안전
최우선!
전체 좌석 195개 중
하루 50명 사전예약
다채로운 공연
안전하게 즐겨요!

★ 안산문화재단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연장 시설을 운영 중이다. 방역 수칙에 따라 관람객은 시설 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제 사용과 체온 측정 등을 거쳐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이때 발열 기준 37.5°C 이상일 경우 입장이 불가하다. 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 개인문진표 작성과 함께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통한 시설물 출입 내역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당일이라도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월2일, 첫 번째 공연은 디스이즈잇의 'THIS IS IT'이 꾸민다. 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공연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화려한 스트리트댄스와 3D레이저쇼, 홀로그램 등이 어우러진 공연이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6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9월4일에는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아카펠라 콘서트 '불후의 명곡' 공연을 펼친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 아카펠라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제니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곡들을 모아 아카펠라로 재탄생시켰다.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9월9일에는 더 스트라움이 스토리텔링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공연한다. 이탈리아 작곡가 도니체티의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공연해 관객이 오페라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9월11일에는 프로덕션 연작의 작품 '남산타워 벚꽃은 4월에 진다'가 무대에 오른다. 연극, 뮤지컬,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융·복합 퍼포먼스를 펼치는 프로덕션 연작이 벚꽃과 별이 아름답게 핀 어느 여름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12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9월18일에는 안산 출신의 전문예술가들이 모인 아트벨라르페가 창작뮤지컬 '청문당'을 선보인다. 경기문화재단 제94호로 지정된 장소인 청문당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해암 유경종 선생과 표암 강세황 선생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담아냈다.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9월23일에는 타악 그룹 블랙 퀸이 '타악 콘서트: 리듬 카니발'을 공연한다. 전통 타악의 흥부터 삼바의 장난스러움까지, 마임, 군무, 난장 등 풍부한 사운드가 펼쳐진다.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9월25일에는 글로벌제이아트홀 소속 다국적 전문예술단인 인터내셔널 영드림즈의 'Movement' 공연이 이어진다. 코로나로 지친 요즘, 시원하고 강렬한 아프리카 비트와 난타의 경쾌한 리듬 위로 클래식 선율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안산문화재단은 오는 10월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긴 지역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관객을 만날 수 없게 된 총 21개 지역 예술인과 예술 단체를 지정, 이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익금은 전액 예술단체에 전달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 ◆ **공연장소**: 소극장 보노마루(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82, 상록수체육관 우측)
- ◆ **공연일정**: 오는 10월말까지 (9월16일, 10월6일·28일, 추석 연휴 공연 없음)
- ◆ **공연시간**: 매주 수·금 오후 7시
- ◆ **입 장 료**: 전 공연 감동 후불제(기본적으로 무료 입장이나 공연을 관람한 후 느낀 감동을 크기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
- ◆ **문 의**: 안산문화재단(031-481-4025)



향토사박물관 '비대면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안산 향토사박물관은 9월부터 다양한 비대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문화 체험 참여기회가 제한된 시민들을 위해 향토사박물관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 개발했다.

향토사박물관은 가장 먼저 안산 설화를 주제로 한 초등교육 프로그램 '우리 동네 설화이야기'를 선보인다. 전문 강사와 '극단 이유'의 배우들이 안산의 설화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영상을 사전 제작했다. 특히 학년별 연령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설화를 동화구연으로 듣고 영상 속 캐릭터와 몸놀이 게임, OX퀴즈 등을 풀 수 있도록 참여 수업으로 만들었다. 또 우리 동네 이야기에서 변형된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영상을 보면서 스토리 북, 함초 소금, 드림캐처 등을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및 관내 다양한 유적지를 방문했던 현장답사교육과 전통체험 프로그램 대신 온라인 체험 교육이 가능한 유물·유적지 감상 동영상도 제작했다. 세시풍속과 전통놀이를 주제로 한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유튜브 등을 통해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



'우리 동네 설화이야기' 전문 강사와 배우들

하게 하는 역사 학습과 체험 활동 '가정으로 찾아가는 향토사박물관' 프로그램도 펼친다.

모든 프로그램은 향토사박물관 홈페이지(www.ansanculture.or.kr)에서 만날 수 있다. 유아·초등학생·가족 대상의 찾아가는 교구재 만들기 재료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안산형 특색교육!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III' 추진

안산시는 지난 8월21일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III'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역 사회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합의서에 따라 2021년 2월 종료되는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 II'에 이어 시즌III가 추진된다.

양 기관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미래를 여는 안산교육'을 비전으로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지역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등에 나선다.

시즌III는 지역 사회의 교육인프라 발굴과 학교 교육력 제고 위주로 진행했던 시즌 II와 달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으로 확장해 지역 교육력을 높인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안산시는 2016년부터 시즌 II에 참여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안과 밖이 모두 배움의 공간이 되는 교육을 통해 안산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산형 특색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9)

- 2020안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

방구석 가요제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방구석에서 즐기는 어울림마당
#청소년어울림마당 #놀자! #SYC #모두모두 모여라

참가부문

4개 부문 : 보컬, 랩/힙합, 연주, 트로트

일정안내

접 수 : 2020년 8월 7일 ~ 9월 05일
외부심사 : 2020년 9월 09일 ~ 9월 11일
(안산시청소년재단 인스타그램 댓글)
내부심사 : 2020년 9월 12일
발 표 : 2020년 9월 19일 14:00
(안산시청소년재단 유튜브채널)

시상내역

각 부문 1위 : 10만원 상당 시상
각 부문 2위 : 5만원 상당 시상
그 외 추첨을 통한 시상(10명)

주최 | 여성가족부, 안산시 | 주관 | 상록청소년수련관

접수방법

- ① 자유곡 1곡과 선택사향(양희은-상록수)를 방구석에서 각각 녹화
- 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③ 신청서와 녹화영상, 반주MR 메일 전송 (ghals8318@ansanyouth.or.kr)

※확장자(MP4), 동영상크기(FHD) 설정 후 참가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가로로 촬영된 자유곡·선택사향 각 4분 이내의 원본 영상

참가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9세~24세)

문 의

031-412-1725
(상록청소년수련관 활동문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온라인 가을 독서교실

2020 9.14 개강!

모집기간 2020년 8월 24일 - 9월 10일
모집대상 초등학교 4-6학년 50명

운영방법

- 안산시 도서관 유튜브채널을 통한 영상제작을 시청
- 네이버 밴드를 통한 출석체크 & 활동참여

모집안내

8.24.(월)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lib.ansan.go.kr)
>문화행사 인터넷 선착순 접수 (본인인증, 전화번호 등록)

회 차	내 용	개 시 일
1차시	온라인 개강식, 안산의 책 독서퀴즈	9.14(월)
2차시	[악플도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사이버 공간 악플 퇴치법 및 말의 양면성에 대해	9.14(월)
3차시	권혜령 작가와의 만남 [일곱 단어와 함께 하는 즐거운 미디어생활]	9.15(화)
4차시	내 손으로 만든 구글카드보드(HMD)로 VR체험하기	9.16(수)
5차시	독서퀴즈 정답 발표, 온라인 수료식	9.17(목)

정의의 악플러
3차시 / 9월 15일 / 2018

퀴즈 도서
2020 안산의 책 아름다운 것은 자주 생각나
안산시/문화행사/2018

안산 미디어라이브러리 Ansan Media Library 문의전화 031-481-3348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움직이는 '온마을 자연학교' 시리즈 ②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안산은 생태환경도시로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재단을 설립했다. 안산환경재단이 지원하는 안산형 시민환경교육 통합 브랜드 '온마을 자연학교'는 마을 주민이 환경교육 리더가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인다. 지역 자연생태환경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하고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온마을 자연학교 동아리를 6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하천수질정화 동아리

신통방통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신길천은 원시동과 성곡동을 지나 시화호로 연결되는 연안하천이다. 공단지역을 흐르는 간선 수로 신길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곧바로 시화호로 유입된다. 이 신길천의 생태환경을 살피고 5년째 정화 활동을 펼치는 동아리가 있다. 2016년 신길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 '신통방통'이다.

'신길천을 맑게'라는 마음 하나로 꾸준히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신통방통은 초기 16명 정도의 중학생들이 만든 교내 동아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동아리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주요 활동으로 ▲정화 활동 ▲신길천 주변 미세먼지 측정 ▲자원순환 ▲맑은 물 살리기 활동 등을 펼친다.

신길천 상류는 학생들 등하곳길이다. 신통방통 소속 아이들은 지난해까지 학교를 오가면서 1시간씩 하

천 주변 쓰레기를 주웠다. 평소 등교시간보다 한 시간씩 일찍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줍깅'(줍기+조깅)이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다.

윗물을 맑게 해 아랫물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길천은 서해와 직결된 천이지만 정화 작업이 매우 어려운 곳이다. 하천 상류는 송사리가 살 정도로 물이 많다. 아이들과 주민 모두 지금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쓰레기를 줍는다.

이들이 한번 나가면 줍는 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주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들로 100ℓ 봉투 20개

가 순식간에 채워진다. 하천 하류에 다다르면 손과 옷이 엉망이 되는데 이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한 업체에서 화장실도 제공해주고 있다.

동아리 신통방통의 박향신 대표는 “신길천 주변이 깨끗해지면 그 영향력이 산업단지까지 전해져 함께 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작은 작지만 안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안산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자연 하천인 신길천 상류가 성형되지 않은 모습으로 끝까지 보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05~6)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탄소배출권 구입예산 11억 원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전년도보다 33% 감소

안산시가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대비 33% 이상 줄여 탄소배출권 구입예산 11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에 따르면 2019년 시 공공하수처리장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만1천436톤이며 실제 배출량은 15만1천289톤으로 기준량보다 147톤을 덜 배출했다. 이는 2018년 배출량 22만7천572톤보다 33.5% 줄어든 수치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지자체, 국가 등은 사업장마다 설정하거나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기준으로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거래한다. 시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1·2처리장, 대부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장(불도·탄도·부흥·풍도·육도) 등 모두 8개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공공하수처리장의 초과 배출량을 예상하고 탄소배출권 부족분 구입을 위해 확보해둔 11억 원의 예산을 시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고효율 하수처리설비 교체, 소화조 개선에 따른 바이오

가스 회수량 증가, 전력사용량 감소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공공하수처리장은 올해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공장계열) 산기관 교체 ▲하수1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기계식농축기 교체 등 공공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하수과(031-481-2585)



종이팩·폐건전지를 화장지·새건전지로 교환하세요!



안산시가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유해 중금속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연중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종이팩 54.2톤과 폐건전지 25.3톤을 수거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했다. 지난달부터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화장지 1롤의 지급 기준을 종이팩 1kg에서 0.5kg로 하향 조정했다.

시민 누구나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배출하면 종이팩 0.5kg당 화장지 1롤, 폐건전지는 규격에 상관없이 20개당 새 건전지 1조(2개 1세트)를 받을 수 있다. 종이팩 종류는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소주팩 등이며, 교환 시 물로 씻어 건조·압축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들의 작은 번거로움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음 세대의 건강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8)

안산시 단원보건소 구강보건교육 배달 서비스 실시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구강보건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강보건교육 키트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면 대상자는 키트에 담긴 설명서를 토대로 올바른 칫솔질 등 청결한 구강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키트에는 올바른 양치질 방법 등의 설명이 담긴 동영상 USB, 치아모형, 구강위생용품



등이 담겼다.

보건소는 어린이집·유치원 13개소에 659개의 키트를 배포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등으로 서비스 대상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키트에 담긴 설명서와 동영상의 구체적이어서 교육자들이 아동들에게 쉽게 구강관리법을 가르칠 수 있다”며 “치아모형을 활용한 칫솔질 체험이 아이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치과 전문 인력이 대면해 시술하는 불소도포 방식이 아닌, 불소가 든 치약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불소치약 양치사업’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등은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실(031-481-6760)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 확대 시술 종류 따라 최대 110만원·총 17회까지 지원

안산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중이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직장 18만237원·지역 18만5천31원)의 난임 부부로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술 종류별로 회당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등을 총 17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난임 시술 전에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난임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윈스톱 서비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5~6) 및 단원보건소(031-481-6473~4)로 문의하면 된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하세요?
담배는 혼자 끊지 말고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함께 금연하세요
금연지지자가 있는 경우 금연성공율이 높아집니다!**

• 금연클리닉 가족 등 지지 프로그램 •

대상	금연을 하고 싶은 흡연자 및 가족 등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다 2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엽서를 쓴다 3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응원도구를 받는다 ※ 응원도구 : 금연달력, 마사지기, 스트레칭밴드, 끼움블럭 등 4 가족 등의 응원, 도움 속에서 금연에 성공한다
문의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481-5899, 5921)

건강지식 칼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류마티스 관절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성재 교수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림프구가 몸의 일부를 세균으로 잘못 인식해 생기는 질환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림프구가 관절 활막을 공격하고 관절과 관절 주위의 뼈를 파괴하는 질환이다.

보통 35~50세 사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남녀 비율은 1:3 정도로 여성에게 더욱 많고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약 1%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류마티스 환자 수는 매해 25만 명 이상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흡연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치주염과 같은 감염원에 노출되어 항-CCP 자가항체가 만들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치료는 환자 개인의 질병 양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요법, 물리치료, 수술, 영양 공급, 휴식 등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통증을 억제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병 후 2년 이내에 약 60~70% 뼈가 녹아나는 골미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손과 발의 관절이 붓고 아프며,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서 펴지지 않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피곤하며, 열감이 느껴질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고 의료진과 상의 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사 중, 항-CCP 항체 검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가 없고 치료가 되지 않는 병’으로 오해하고 있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좋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관절 보호 요령을 잘 숙지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은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

적절한 운동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과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트레칭, 걷기,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등의 운동을 권한다. 하지만 햇빛이 강한 시간대의 야외 운동이나 몸이 지나치게 더워지는 시간대의 운동은 쉽게 지칠 수 있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사계절 내내 꽃향기와 바다향기가 가득하고, 크고 작은 식물들이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대부도에 가면 산과 바다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이 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향긋한 꽃내음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준다. 아름다운 낙조로 붉게 물든 서해안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로 청량감 가득한 숲속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9월, 오롯이 나만을 위한 향기로운 시간을 가져보자. 바다향기수목원은 서해안 도서 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시민의 산림 휴양을 위해 대부도 101만㎡에 조성됐다. 2019년 5월 문을 연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우리나라 중부 도서 해안 식물을 중심으로 1천여 종류 30여만 그루의 다양한 식물이 자리하고 있다. 수목원은 구역별로 특색 있는 이야기가 담긴 20개의 주제원으로 구성돼 있다. 수려한 서해안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상상전망대'를 비롯해 암석원, 장미원, 바다너울원 등에서 자연 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백합심터와 소공원장 같은 휴양 시설도 마련돼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수목원이자,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 현장이다. 또 가족 산림 휴양과 문화 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혜의 자연을 품을 대부도와 함께 서해안 관광 명소로 주목받는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해보자.

이용안내

- 주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 399
- 관람시간** 봄·가을 오전 9시~오후 6시
여름(6~8월) 오전 9시~오후 7시
겨울(11~2월) 오전 9시~오후 5시
- 입장료** 무료 **휴원일** 1월 1일, 설날, 매주 월요일
- 문의** 바다향기수목원(031-8008-6795)



수목원 관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수목원 보전을 위한 일입니다.

1. 관람 지역 외의 화단이나 식물이 심긴 곳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2. 식물, 씨앗이나 토석 등을 캐거나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3. 수목원은 금연, 금주 구역입니다.
4. 개인용 도시락만 먹을 수 있으며 배식은 할 수 없습니다.
5. 돛자리는 잔디마당과 백합심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수목원에는 쓰레기통이 없으니, 쓰레기는 꼭 가져가 주세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



바퀴 달린 탈것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 기구나 운동 기구
(비눗방울, 공, 줄넘기, 유무선 조종기 등)



야영 도구
(텐트, 그늘막 등)



식물 채취 도구, 곤충 채집 도구 등



반려동물 입장 불가



모든 상상이 전망되는 곳, 상상전망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상상전망대는 국내에서 가장 긴 아트슬로프(70m)가 설치돼 있다. 하늘 등 자연 소재를 도자기 파편으로 형상화한 아트슬로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또 1004개의 풍경(風馨)이 달려있는 ‘소리 나는 꿈나무’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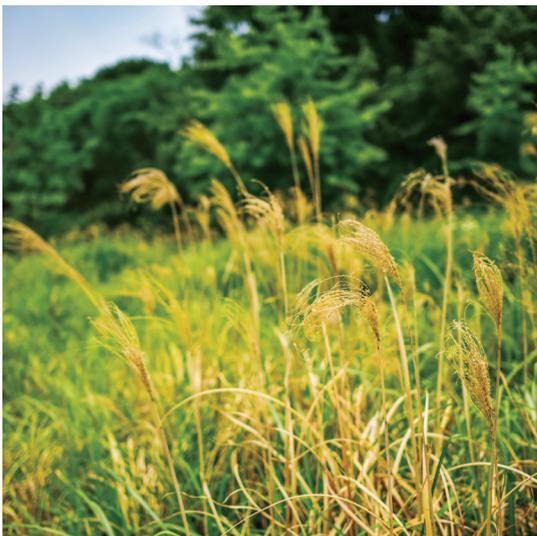
사계절 내내 식물이 가득한 전시온실

난대 및 해양성 식물이 있는 유리온실이다. 황칠나무, 시로미 등 50종 1천452본의 식물들을 마음껏 관찰할 수 있다.



12개의 인공연못을 연결한 심청연못

심청전에 나오는 깊은 물, 인당수를 상상해 만든 연못이다. 인공연못 12개를 길게 연결했으며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다.



가을의 낭만을 지닌 억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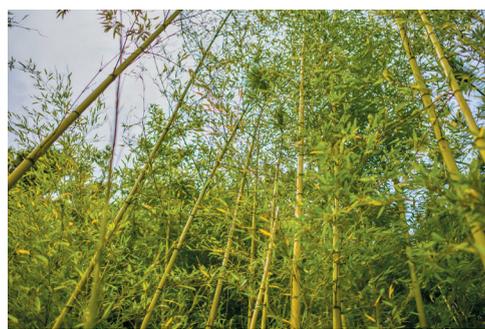
억새원은 수목원 내 3000㎡에 억새를 심고 탐방로를 내 만들었다. 바람이 불면 억새가 출렁이며 만들어내는 경치가 장관을 이룬다.



화려한 장미 향기에 취하는 장미원

분홍빛 콘크리트 휴관*에 화려한 원색의 장미가 피어 있는 장미원은 수목원에서 손꼽히는 포토 존이다. 전신주나 상하수도관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휴관을 화단으로 활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공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5월부터 늦여름까지 1천300여 본의 아름다운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다.

*원심력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살포해 만든 철근 콘크리트 관



초록빛 짙은 대나무원

수목원에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대나무원은 지역주민이 기증한 대부동 대나무로 만든 곳이다. 바람에 사각거리는 댓잎 소리가 일품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암석원

작은 바위와 돌, 모래로 이뤄진 암석원은 총 35종 3천여 본의 식물을 품고 있다. 병풍처럼 펼쳐진 암석들 사이로 바위와 식물의 조화가 인상적인 곳이다.



바다의 물결을 형상화한 바다너울원

자연생태의 바다가 너울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바다너울원은 안산 대부동 선감도에 있는 대흥산 계곡물을 모아 만든 생태연못이다. 물속에서 숨바꼭질 하는 물고기도 찾아볼 수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 안산갈대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에도 푸르른 계절이 찾아왔다. 물 소리길 주변에는 연꽃과 해당화가 한창 피었으며, 개복숭아 나무에도 열매가 맺혔다. 새로 조성된 바람소리길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많은 곤충들이 모이고 수달, 삵, 물새들은 봄에 태어난 새끼들을 건강하게 보살피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도심 속 휴식 공간, 안산갈대습지공원. 가을이 오면 높아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다양한 습지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다. 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반월천·동화천·삼화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생 식물과 갈대를 이용한 자연 정화처리 시설로 2005년에 조성됐다.

1.7km의 야외탐방로를 따라 걷다보면 끝없이 펼쳐진 넓은 갈대숲과 습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갈대습지공원은 뛰어난 생태 환경을 품고 있다. 해오라기, 장다리 물떼새, 중대백로 등 여러 철새들이 갈대습지공원을 찾는다. 방문객이 적은 시간에는 수달, 삵, 고라니 같은 보기 어려운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다.

습지 지대를 벗어나 어도에 도착하면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하천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수중보가 물길을 가로 막는 환경을 고려해 완만한 기울기의 어도를 만들어 물고기들이 쉽게 하천 위아래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물고기길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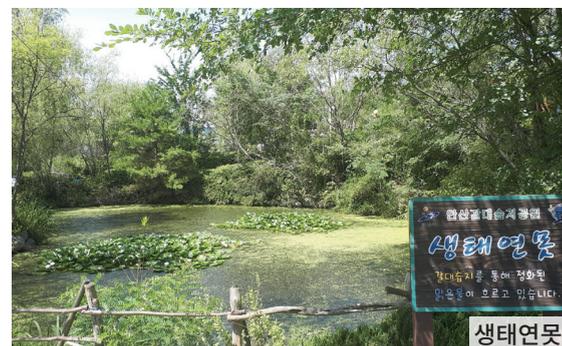
환경생태관 앞에 있는 생태연못은 갈대습지에서 정화된 물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곳으로, 깨끗해진 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연꽃, 부들 등 수생 식물 사이로 붕어와 잉어가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현재 갈대습지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탐방로(산책로)와 화장실, 주차장만을 개방한 상태다. 공원 내 환경생태관과 탐조대(조류관찰대), 자연에너지 체험교육장, 자연향온실 등은 상황이 나아지면 이용 가능하다. 탐방로 이용 시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방역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치유공간'으로 자리 잡을 갈대습지공원에서 가을이 오면 더 풍성해질 자연을 만끽해보자.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갈대가 궁금해요!

김자영
생태해설사

갈대는 여러해살이풀로 3m까지 자라며 줄기 속은 비어있고 대나무 같아 갈대라고 불렸습니다. 또 다른 유래로는 산꼭대기의 역새가 산 밑 물가까지 내려와 피어서 갈대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다 자란 줄기로 갈대밭, 지붕, 자리 등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안산갈대습지에서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으로 사용하고 퇴비로도 이용합니다. 개체가 크고 번식력이 왕성해 대체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안산갈대습지의 많은 갈대들은 시화호의 수질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심었습니다. 꽃은 9월~10월 경에 자주색에서 갈색으로 피는데, 이때 안산갈대습지공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안산 갈대습지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 친구들~!



이용시간

- 하절기(3~10월) : 오전 10시~오후 6시
- 동절기(11~2월) : 오전 10시~오후 4시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 코로나19 상황 및 조류독감 유행에 따라 운영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입장료 : 무료

문의 : 안산시갈대습지공원생태관(031-481-3810)

대한민국 산업 역사가 한 눈에 펼쳐지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2021년 11월 공식 개관,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국내 산업 발전을 이끈 안산산업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2021년 안산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한다.

안산시는 단원구 동산로 화랑유원지 내 남서쪽 1만3천여㎡ 터에 5천160㎡(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로서 국내 산업 발전을 선도한 안산산업의 역사를 조명하고 지역과 시민, 산업인을 연결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2021년 11월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2013년 처음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전시실과 수장고, 자료실, 교육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박물관 내 전시실은 ▲산업역사관 ▲산업기술관 ▲산업생활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역사관은 안산지역은 물론 국내 산업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관련 지도와 자료 등이 전시된다. 산업기술관에서는 전자제품 등 각종 공산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전시한다. 산업생활사관에서는 안산지역 등 공업지대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은 현재 안산산업을 상징하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소장품 수집에 나서고 있다. 국가 산업 발전의 뿌리 역할을 담당한 노동자들의 흔적과 기억을 모으는 중요한 과정으로 소장품 공개구입, 기증, 경매 등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소장품 공개구입이 이뤄졌다. 올해 8월에도 1차 소장품 공개구입이 진행됐다.

수집 대상은 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생산품과 대표 기술, 각종 산업기계, 설비도면 등이다. 또 작업복 및 작업 도구, 월급봉투 등 노동자 개인 물품과 산업단지 관련 사진 및 영상물 등도 포함한다. 수집된 소장품이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전시와 연구 및 교육 자료, 박물관 상설전시 및 특별전 개최, 전시도록 제작 등에 활용되며 박물관 기증 명패가 부착된다.



박물관은 콘텐츠 수집과 관련해 유형 자료뿐만 아니라 ‘반월, 시화국가산업의 주역들’이라는 주제의 구술 자료를 수집해 작업을 마쳤다. 산업단지 조성 전후부터 현재까지 산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관련 도시계획가, 산업단지 건설 이전 원주민과 초기 입주자, 산업별 노동자 등을 구술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건립하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산업발전사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043)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나눔 ‘필라멘트 봉사단’



(사)필라멘트봉사단이 올해로 7년째 기초수급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등을 위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2014년 발족한 (사)필라멘트봉사단은 1천200여 회원이 활동 중인 대규모 봉사단체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김장 나눔, 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위한 영화 나눔 사업 등을 펼친다. 또 자연보호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료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치아, 보청기, 안경 등을 지원하고, 무료급식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무료

도시락 배달과 열무김치 나눔 사업 등을 벌였다. 특히 150여 봉사자가 직접 열무김치를 담가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 등에 배달했다.

정해근 (사)필라멘트봉사단 회장은 “봉사단의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를 파악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 중”이라며 “내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봉사 계획도 준비 중으로 복지법인으로서 필라멘트 봉사단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전희정 (사)필라멘트사무처장(010-3570-1948)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중앙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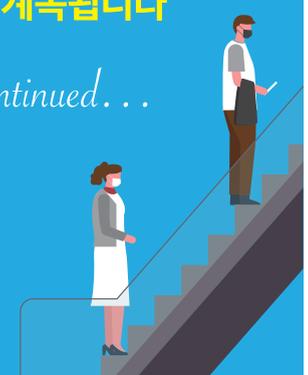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셨죠?
내년까지 전철 4호선
**중앙·초지역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깁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이
이용하는 중앙·초지역
시민 모두 편하게!
거동이 어려운
임산부·장애인·어르신
이제 안심하세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안산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초지역





문화마켓



공유마켓



착한마켓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착한 소비문화 확산하는 ‘공유상회’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1층에 문 열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공유상회’가 8월14일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1층에 문을 열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재화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유상회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 6월 상록구 월피동 소재 광덕종합시장 1층을 임차 및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유상회에는 ▲착한마켓(3개소) ▲공유마켓(3개소) ▲문화마켓(4개소) 등으로 공간을 나눠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창업자 등 총 8개 기업이 입점했다. 입점기업은 임차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착한마켓은 식음료와 먹을거리 등을 판매하는 카페, 휴게음식점 등이 자리하며, 공유마켓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로컬 푸드, 지역 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한다. 문화마켓은 안산시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방 형태로 마켓을 운영해 수공예품을 판매한다. 현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두레 커피마을, 두레 생협, 고기서만나, 공방삼거리 협동조합, 크레프트 스토리, 청년이음, 신나는 문화

학교 등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마켓, 공구대여소 등을 갖춰 그동안 소외됐던 광덕종합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특히 ‘안산 에너지마켓’ 1호점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등기구와 LED전구, 태양광제품, 절전멀티탭, IoT(사물인터넷)제품 등 고효율·절전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에너지상당사 출신 매니저가 에너지컨설팅하며 가정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상회를 방문한 박희경(월피동 거주)씨는 “이런 공간이 생겨서 기쁘다. 손뜨개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취미활동을 할 수 없어 힘들었다”면서 “이곳에서 나는 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 수 있어 자주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유상회는 월피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에게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및 자립화’ 등을 펼쳐 사회적 경제기업의 바람직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문의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481-8942)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주민이 만드는 지역 여행, 안산에서 만나는 관광두레 시리즈 ㉔



‘관광두레’는 마을주민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음식과 체험, 기념품, 레저, 숙박 등 관광 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개발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소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2019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5개의 주민사업체가 창업에 나섰다. 안산 고유 관광 아이템 개발에 나선 주민사업체 5곳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즐거운 변화, 사이동의 ‘벚꽃사이마을협동조합’

벚꽃사이마을협동조합(협동조합)은 상록구 사이동에 거주하는 11명의 엄마들이 모여 만든 마을공동체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함께 행복한 벚꽃사이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1월 설립된 협동조합은 초기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취미 특화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마을 해설사, 캘리그래피 등 공예 강사, 요리 강사 등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소수의 동네 주민들이 모여 마을 쓰레기를 치우고, 벚꽃축제를 열면서 마을 내 소소한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특히 엄마들이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는 협동조합은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엄마가 놀이전문가인 ‘플레이 메이커’가 되어 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놀이’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 속에서 누구나 상상과 모험, 일탈을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를 확산시켜 관광마을로서 사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부터 ‘소셜 미션’이 있는 관광두레를 진행 중이다.

이정원 벚꽃사이마을협동조합 대표는 “사이동은 쓰레기 매립지가 있던 역사를 갖고 있는 등 다른 마을보다 소외된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쓰레기 매립



지었던 곳이 마을 정원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등 주민 주도의 즐거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엄마들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관광’을 포인트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관광두레를 만들기 위해 우리만의 새로운 마을 상품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벚꽃사이마을협동조합(010-5505-4757)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상록구 일동 마을기업 '카페 마실'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우뚝!

카페 마실은 2015년 일동에서 공동육아를 진행하던 부모 6명이 모여 만든 공동체 교류 공간이다. 공간을 임대해 자녀들을 함께 돌보던 사단법인 '울타리 넘어'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다가구 건물 한 동을 매입하면서 카페 마실의 문을 열었다. 구입한 다가구 건물 2~3층은 회원가구가 세를 들었다.

카페마실 1층은 브런치 카페 형식으로 마을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며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발표회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벽면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작품을 걸 수 있는 근사한 전시실이다.

카페 운영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지역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다. 카페는 월 매출 1백만 원으로 출발해 지금은 1천만 원이 넘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카페에 인적이 끊겼을 때는 전 직원이 머리를 모아 기지를 발휘했다. 배달 사업을 시작해 인근 학교 교사들의 점심을 책임진 것이다.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알음알음 소개를 받는 등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매출을 올렸다. 또 기업체 노

조와도 협약을 맺고 직원 생일축하용 케이크와 빵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 행사 음식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와 매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서 마실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농복합연계일자리를 기획 중이다.

특히 충남 공주의 밤 농장과 협약을 맺고 기계로 깎은 밤의 마무리 손질 작업을 맡기로 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폐지 줍는 일 외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공단 은퇴 노동자들을 모아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 단체 등에 냉난방기 청소·수리 사업도 계획 중이다.

정은철 사무국장은 "카페 마실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언덕이 마을 사람들에게 생겼다"며 "이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일자리 창출하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실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일동을 가꿀 계획이다. 마을기업 마실의 10년 후가 기대된다.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6길 23-1, 1층 카페 마실
문의 : 마을기업 카페 마실(031-415-1225)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지금은 혼밥, 혼술 시대! 1인 가구 증가로 커져가는 가정식 시장 신중년의 새로운 일자리 대안으로 뜬 '한식조리기능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 도시락 시장도 커졌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 덕분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취업 또는 밥집 창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부모 세대로부터 전통의 맛을 전수받은 5060신중년 세대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금



상첨하다.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급식지원시설에 취업이 어렵지 않다. 하루 5시간 정도 시간제 일을 하다가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밥집 창업도 전망이 밝다.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각 가정의 식탁까지 아우르는, 누구나 편하게 아침·점심·저녁을 집밥처럼 와서 먹을 수 있는 밥집 수요는 계속돼 왔다. 정갈한 가정식 공급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7~8월 한식조리기능사 훈련을 받은 A(56·고잔동)씨는 주 4회씩 학원을 나가 요리 시연 등을 펼쳤다. 합격률이 20~30%로 쉽지 않은 시험이지만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식은 죽·밥·국·탕·찌개·전·적·조림·구이·볶음·냉채·숙채·생채까지 조리법이 다양하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영양을 살린

과학적인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재료썰기·콩나물밥·비빔밥·장국죽·완자탕·두부전국찌개·생선찌개·생선전·육원전·표고버섯전·포갯추전·섭산적·화양적·지짐누름적·무생채·도라지생채·더덕생채·겨자냉채·육회·미나리강회·두부조림·홍합초·너비아니구이·제육구이·북어구이·더덕구이·생선양념구이·잡채·탕평채·칠절판·오징어볶음까지 능숙하고 정갈하게 제한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총 31개 품목 중 임의로 선정된 2개 품목으로 실기를 치른다. 자격증 취득 준비는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신중년의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는 한식조리기능사에 도전해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해보자.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참고 :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시험 정보(www.q-net.or.kr)

YouTube channel promotion for Ansan City. Includes a cartoon character, a smartphone, and the text '안산시가 궁금해? 안산시 유튜브 채널 구독' (Curious about Ansan City? Subscribe to Ansan City YouTube Channel). Call to action: '구독! 팔로우! 좋아요!' (Subscribe! Follow! Like!).

즐거로운 안산 '청소년의원' 생활, 오늘부터 1일!

청소년의회, 12월까지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정책 발굴 나서

안산시의회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가 의원 위촉과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와 교육지원청은 8월6일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산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 및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30명에 달하는 청소년의원 위촉과 청소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의장단 선거를 마쳤다.

위촉식 뒤 열린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실제 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후보로 나선 청소년 의원들은 정견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동료 청소년 의원들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선거 결과 청소년의회 의장에는 정윤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3학년 학생이, 부의장에는 유지우 안산성호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당선됐으며, 기획행정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에는 각각 여성수(원곡중 3학년), 권세연(단원고 2학년), 이다빈(경수중 3학년) 학생이 선출됐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청소년 의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지역 사회 이해를 위한 현장활동과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이해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하면서 청소년 시각으로 바라본 정책을 발굴, 제안에 나서게 된다.



박은경 시의회 의장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며 “열정과 의지로 청소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안산의 미래를 열어갈 시민의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운영을 위해 의회는 앞서 지난 5월 교육지원청과 ‘안산청소년의회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11명 등 총 30명을 선발해 청소년의회를 꾸렸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

수원 자원순환센터·안산 재활용선별센터 잇달아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이 최근 폐기물 배출 방안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차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생활폐기물 연구모임 소속 윤석진, 이기환, 김정택 의원은 지난 8월10일 연구모임 외부전문가,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안산시 청소정책팀 관계자 등과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및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를 잇달아 방문했다.

올해 2월부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정책 연구를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연구용역 추진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연구모임은 이날 현장 활동에서 시설 별 폐기물 수집 및 선별 과정을 파악하고 그동안 폐기물 수거 방안 개선책으로 논의해 온 재활용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봉투 사용 효과에 대한 검증 사례가 적다는 점과 배출시 색상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파봉 절차만 추가될 뿐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 등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시민 의식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봉투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의원들은 재활용 쓰레기봉투 사용 안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론 중

하나로 제시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재활용 봉투 사용 효과 분석과 추가 개선책 모색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의회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을 비롯해 '상생'과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 '미래의 빛', '우리는 모두 꽃이다' 등 총 5개 연구단체가 구성돼 있으며, 이들 단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단체별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안산시의회, 광복절 맞아 한반도 평화 기원 차 한반도기(旗) 게양 동참

안산시의회가 지난 8월14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박은경 의장을 비롯해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정숙 의원 등 의원들과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 안산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국기게양대에 한반도기 게양을 엄수했다.

이번 한반도기 게양은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 안산본부 측 제안을 의회가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성사됐으며, 의회는 한반도기를 8월 말까지 게양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게양에 앞서 의장실에서 본부 측 관계자들과 지역에서의 통일 운동 확산과 남북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박은경 의장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고자 이번 게양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문화도시 안산 사지 말고 대여하자!

오랜 시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물품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원을 순환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으로 '공유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유문화로는 페달로(자전거), 청년공간 경기내일상상대로, 생활 공구 대여, 가로수 정원 공유, 택배보관함 공유 등이 있습니다.

• 권성혜 생생마을기자



석호초등학교 학부모회 마스크 1천개를 제작해 선물하다

석호초 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사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작업공간을 마련해 천을 자르고 재봉틀을 돌리고, 끈을 묶고, 포장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면서 나눈 엄마들의 대화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학교 꼬맹이들이 똑같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귀엽겠다",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 마스크 끈도 만들면 어때?", "필터는 좀 넉넉히 줘으면 좋겠어"

• 정화영 생생마을기자



10대의 신분증 청소년증 발급 알아보기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 알고 계신가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버스·지하철 20~40%, 철도 10~30%), 박물관·미술관·각종 공연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체크카드처럼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은결 학생기자



경기도미술관에 그릇이 가득한 이유는?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은 하루 4회, 회당 관람객을 제한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사진 속 작품의 그릇의 정체는 황연주 작가 작 'H양의 그릇가게'입니다. 작가는 버려진 그릇을 집으로 가져와 깨끗이 닦으면서 그릇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식탁에 놓여있었던 때를 상상했다고 합니다. 풍성한 전시 관람 후 화랑유원지 산책까지 즐겨보세요!

• 이금순 SNS시민기자



원곡동 다문화거리 도삭면을 소개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와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원곡동 다문화거리 맛집 메뉴 중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도삭면을 소개합니다. 중국 산시성 전통음식으로 폭 썰낸 소고기 육수와 청경채, 쫄깃쫄깃한 면발이 일품입니다. 중국에서 온 본토 주방장이 칼 끝으로 쳐내는 면발을 팔팔 끓는 솥으로 풍덩~ 골인시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도삭면. 한 번 드셔보세요!

• 문규리 SNS시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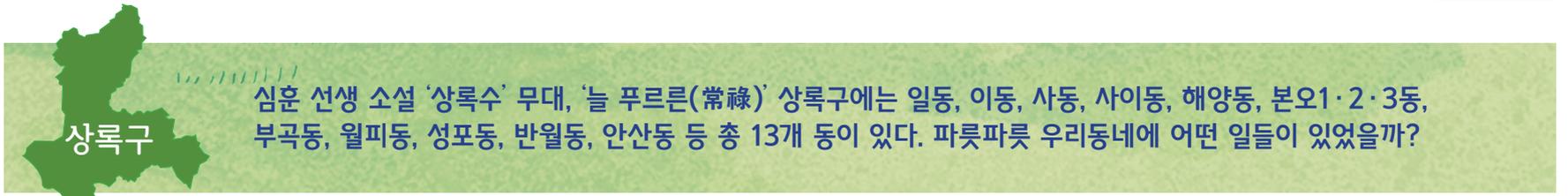


찾아가는 문화활동 '옹이와 멍이의 동화모험'

안산시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202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음악, 연극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43개 단체가 경기도 전역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비로 환경이 파괴된 동화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옹이와 멍이의 이야기, 함께 보러 가실까요?

• 이금순 SNS시민기자





본오동

산모의 기력회복 위해 '맘앓든 선물' 전달

본오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14일 취약 계층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소고기와 미역으로 구성된 '맘앓든 선물'을 전달했다.

'맘앓든 선물'은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모의 기력회복과 가족을 위해 20만원 상당 구이용, 국거리용 소고기와 미역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상반기에 전달하지 못한 가정을 포함해 선물을 전달했다.

이관섭 본오1동장과 모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맘앓든 선물’은 본오1동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위해 배부하고 있다"며 "출산으로 고생한 산모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본오1동행정복지센터(031-481-5704)



본오2동

어울림적십자봉사단, 집중호우 피해 주민 위해 쌀 100kg 기탁

어울림적십자봉사단은 기나긴 장마로 호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지난 8월14일 본오2동행정복지센터에 쌀 100kg을 기탁했다.

기탁된 쌀 10kg짜리 10포는 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호우 피해를 입은 8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윤희 어울림적십자봉사단 회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본오2동 관내에 안타까운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전

달된 쌀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호덕 본오2동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울림적십자봉사단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을 지역 소외계층을 꼼꼼히 살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본오2동행정복지센터(031-481-5626)



부곡동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찾아요"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곡동 협의체 위원들은 8월10일부터 20일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집집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찾아달라는 홍보 리플렛을 부착하고 주변의 이웃을 집중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부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곡동은 올해 1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해 휴·폐업자, 실직, 사회보험료 체납, 의료·주거·고용 위기 등 총 234가구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일제조사를 완료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제4차 및 기획발굴조사로 122가구에 대해 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부곡동행정복지센터(031-481-5514)



안산동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코로나19 극복 여름나기 닭곰탕 전달

안산동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8월13일, 어렵고 소외된 이웃 50가구에 코로나19 극복 여름나기 닭곰탕을 전달했다

닭곰탕 나눔 행사에는 안산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회원 및 직능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날 오후부터 많은 새마을 회원들이 모여 닭곰탕에 쓰일 생닭과 김치를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부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

어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닭곰탕을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도원중 안산동장은 "역대 최장 장마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애써주신 안산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이웃 간 정과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안산동행정복지센터(031-481-5511)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 소식이 궁금하다.

와동

한울타리 봉사단체, 저소득가정 청소년 후원

지난 8월19일, '한울타리 봉사단체'에서 여성위생용품 50묶음(50만원 상당)을 와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울타리 봉사단체는 와동 나무를 심는 성인장애인학교, 와동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와동지역 중증환우 후원, 깨끗한 와동 벽화그리기 및 자원순환, 와동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오재민 한울타리 봉사단 회장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다짐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후원받은 여성위생용품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등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 와동행정복지센터(031-481-6074)



백운동

제75주년 광복절 맞아 태극기 특화거리 정비

백운동 태극기 특화거리의 산뜻하고 깨끗한 유지를 위해 수시로 특화거리를 순찰하는 백운동새마을회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8월14일 특화거리 내 훼손된 태극기와 국기봉을 정비했다. 태극기 특화거리는 2012년 당시 원곡2동 관내 다중밀집지역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조성됐으며 128개 태극기가 화랑로, 라성로, 원선로 650m 구간과 선부광장으로, 원초1로, 원초로, 라

성로 1.2km 구간에 설치돼 있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설치된 모든 태극기와 국기봉을 회수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교체 및 정비 후 재설치했다. 박현석 백운동장은 “설치된 태극기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나아가 백운동이 나라 사랑하는 으뜸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백운동행정복지센터(031-481-6706)



초지동

초지동 '생생엄마표 면마스크' 7천500장 전달

초지동행정복지센터가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면 마스크 제작하고 나눔 활동을 펼쳐 관심을 모은다. 초지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초지동 생생엄마표 면 마스크' 7천500여장을 제작해 관내 어린이집과 산부인과, 단원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부했다. 또 당초 6월까지였던 마스크 제작 일정을 연장해 마스크를 추가 제작하고 경로당 11개소와 초지동, 와동 등에 위

치한 지역아동센터에도 전달했다. 이유정 초지마을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면 마스크를 전달받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숙 초지동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로당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위해 기꺼이 자원봉사를 해주신 통장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의 : 초지동행정복지센터(031-481-6822)



선부1동

관-학협력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지원 사업 추진 활발

선부1동행정복지센터는 선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안산대 사회복지과와 협력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학협력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2019년 새로운 사례관리 모델을 구축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활발한 연계와 협력을 이뤄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선부1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12일, 선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신안산대 사회복지과 대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상담기법에 대한 기초교육'이 실시됐으며, 신안산대 사회복지과 김한욱 교수와 선부1동 맞춤형복지팀의 협업을 통한 슈퍼비전 제공 등 사례회의의 추진으로 올해 말까지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선부1동행정복지센터(031-481-6847)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집 보물 1호

아기 이름 : 장태웅(남) 출생년월 : 2020년 2월 태명 : 우주

2019년 7월3일, 갑자기 엄마 뱃속에 귀한 보물이 찾아 왔다는 소식에 그저 신기하고 설렘에 행복했다. 첫 손주라서 더 애뜻했는지 엄마, 아빠랑 병원 정기검진을 같이 다니며 손가락, 발가락, 심장소리를 보고 듣고 우주가 자라는 모습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우주를 축복했다. 드디어 2020년 2월15일 14시39분, 3.65kg으로 태어나 세상에 크고 우렁찬 울음소리로 씩씩하게 신고식을 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온가족들 환영과 축복 속에 같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아직은 어린엄마도 산고의 고통과 두려움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했다.

초보 부모이지만 태웅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 힘들어서 수척해진 엄마, 아빠의 모습에 안쓰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몰려와 코끝이 찡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태웅이를 처음 마주한 날이 생후 50일! 너무 예쁜 아기천사였는데 벌써 오늘이 200일 되는 날 이구나~~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아빠처럼 멋진 배드민턴 꿈나무로 멋지게 자라렴.

그리고 꽃 같은 내 사위 장훈희, 예쁜딸 장혜미, 우리집 보물1호 손자 태웅아~ 지금처럼만 웃으며 하루하루 예쁘게 살자. 애들이 많이 사랑한다.

· 태웅이 할머니 김정자(상록구 부곡동)



코로나 19

에취!
기침 소리가 들린다.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마치 술래잡기처럼
피해야 한다.

걸리면 나도
술래가 된다.

· 관산초 4 전승열



나뭇잎 엽서

엽서에 나뭇잎 한 장 담아 보내면
텅 빈 가을이 채워질까

태양에 익어버린 나뭇잎을 식히면
가을이 오고 다시 갈까

나뭇잎에 찍힌 벌레의 발자국은
다음 가을까지 남아있을까

비에 젖은 나뭇잎들은
붙어 있기를 원했을까

가을은 다음해도
내 마음 새긴 빨간 단풍잎으로
답장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줄까?

· 박수연(선부동)



책 읽는 안산 / 9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슬기로운 지구생활』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아동



긴 여행

저자 프란체스카 산나 / 출판사 풀빛

'긴 여행'은 평화로운 삶을 찾아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두 아이를 데리고 긴 여행을 나섭니다. 정들과 익숙한 모든 걸 뒤로 한 채,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곳으로 말이죠. 아이들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굉장한 모험을 할 거라며, 짐을 꾸리게 했죠. 그들은 왜 이토록 험한 여행을 하는 걸까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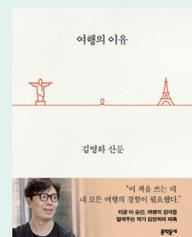


알로하, 나의 엄마들

저자 이금이 / 출판사 창비

사진 한 장에 평생의 운명을 걸고 하와이로 떠난 열여덟 살 주인공 버들과 여성들의 삶을 그렸다. 백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하와이라는 신선하고 새로운 공간을 배경으로, 이민 1세대 재외동포와 혼인을 올리고 생활을 꾸려 가는 여성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성인



여행의 이유

저자 김영하 / 출판사 문학동네

여행의 감각을 일깨우는 소설가 김영하의 매력적인 이야기 『여행의 이유』.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던 저자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 경험을 담아 써내려간 아홉 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지나온 삶에서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온 저자는 여행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행의 이유를 찾아가며 그 답을 알아가고자 한다.



독자
투고

수인선 철길 따라 가을이 오던 날

우리 속담에 ‘가자니 태산(泰山)이요 돌아서자니 송산(嵩山)이라’고, 코로나 19와 수해로 아픔과 어려움만 겪다가 맞이한 가을이라 그런지 하늘이 더 높고 유난히 더 파란 9월입니다. 기상학적으로는 일평균 기온이 20°C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가을’이라고 한다지만 어쩌면 가을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와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원에서 한대앞역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9월부터 기차가 다닐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불현 듯 협궤열차가 다니던 수인선의 추억에 참 반가웠습니다. 마주 앉으면 앞사람과 무릎이 닿을 것 같던 열차 안에 소래포구에서 실려 오던 짠 바다 냄새와 비릿한 젓갈 냄새마저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그 수인선 철길 따라 수줍게 하늘거리던 코스모스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는 안산의 가을입니다.

가을은 작은 바람에도 낫설어하던 코스모스와 짝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애잔하게 밤새운다는 가을의 두 전령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흔히들 인디언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보면 주변의 온도가 24°C 안팎이며, 이때 가장 큰 소리로 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과시하여 짝을 빨리 만나려는 귀뚜라미의 본능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귀뚜라미 사회에도 건달



귀뚜라미가 있어 잘 울지도 않고 빈둥거리며 숨어 있다가 암컷 귀뚜라미가 나타나면 마치 자신이 운 것처럼 짝짓기를 한다니 참으로 암체 같은 귀뚜라미는 곤충 세계에도 있나 봅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베를 짜라고 귀뚜라미가 운다고도 하지만 안산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풍요와 번영으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우나 봅니다. 수인선을 타고 소래포구를 찾는 날, 누군가 가을이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다면 ‘가을은 내 마음 속에 있지만 수인선 철길 따라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박정덕(前 안산 화랑초등학교 교장)



전문가
기고

소중한 가족, 그 안에서 아픈 청소년을 위한 대화

여성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 연령으로 대상 한정) 100명 중 3.5명이 최근 1년 내 가출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경험을 숨기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 가출 건수 중 많은 부분이 신고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가출하는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가 6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업문제(15.9%),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9.6%)였다. 청소년이 가출하는 가장 큰 이유인 부모님과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7년여를 일한 경험과,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한 가출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방치,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의 양육방식, 아이와 부모의 심각한 의견 대립 등 얼핏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하여 가출하고, 심각한 범죄에까지 이른 청소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모와의 대화 부재. 부모는 자녀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앞에 앉은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저 앉아서 그 시간이 지나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한마디라도 말할 경우 부모는 버럭 화를 내거나, ‘네 생각은 틀렸다’고 바로 받아친다. 이럴 때 자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내심이 대단하거나,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결국 집에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못한 자녀는 밖에서 대화의 상대방을 찾거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전혀 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또는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어 준다면 자녀의 가출과 그로 인한 비행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출이 곧 청소년 비행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지나친 비약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등교조차 못하고 친구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요즘, 집에서 지루하게 보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보듬어 주는 것은 어떨지.

· 김성천 변호사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운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연합뉴스TV (7월 29일)
안산시 방역강화국 입국자 시설 의무격려 비용청구

OBS (8월 13일)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 4천8백 명 수혜

한빛방송 (8월 20일)
달리는 안산반상회 다 잘사는 문화소통 회의

MBC (9월 6일 오전 7시)
다큐프라임 안산갈대습지의 야생일기

화랑유원지 자동차극장 무료 운영 안내

- ◇ 운영기간 : 2020년 9월 말까지 매주 금·토 상영
- ◇ 상영시간 : 1일 1회 / 오후 8시~10시
- ◇ 상영영화 : #살아있다, 청년경찰, 증인, 히트맨 82년생 김지영, 말모이, 보안관 등
- ◇ 관람인원 : 1회 당 200대(예약자 중 선착순 입장)
- ◇ 신청방법 : www.ansan.go.kr > 시민참여 > 자동차극장 ※ 관람횟수 제한 : 2회, 강수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우선선발 :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수급자/다문화가정
- ◇ 문 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9)

2020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안내

- ◇ 접수기간 : 2020. 10. 12. ~ 11. 4.
- ◇ 응모분야(휴대폰 및 드론사진 포함) 안산의 자연/관광지/사람들/상징물/역사 관련 사진 ※ 2019. 10. 1. 이후 촬영한 작품에 한정
-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상록구 화랑로 495, 스타프라자 1층 29호) ※ 제출서류 안내 및 작품규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www.paskansan.com)
- ◇ 문 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031-483-5852)

2020 민방위 교육훈련 사이버교육 대체 실시

- ◇ 교육대상 : 안산시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 ◇ 교육기간 : 2020. 9. 1. ~ 11. 30.
- ◇ 교육시간 : 1시간(24시간 접속 가능)
-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의 이해, 재난대비 행동요령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역할실습 등
- ◇ 수강방법 :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동영상 시청
- ◇ 문 의 : (주)한국공교육원(1566-8448)

안산여성문화회 문학아카데미과정 모집

- ◇ 신청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 신청기간 : 2020. 8. 15. ~ 9. 2.
- ◇ 강의기간 : 2020. 9. 3. ~ 11. 26.
- ◇ 일 정 : ① 시 창작 : 매주 화, 오전 10시30분~12시30분 ② 수필 창작 : 매주 목, 오전 10시30분~12시30분 ③ 동화 창작 : 매주 목, 오후 2시~4시
- ◇ 문 의 : 안산여성문화회(010-9153-3056)

감골도서관 비대면 온라인 인문학강연

- ◇ 행사명 : 감골도서관×책 안보고 뭐하니?
- ◇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 교육기간 :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교육 영상 업로드
- ◇ 교육내용 : 주제별 명사 초청 강연 및 독서프로그램
- ◇ 수강방법 : '안산시도서관' 유튜브 채널 접속
- ◇ 강 연 : 서현, 최향량(그림책 작가), 윤운구(EBS 강사) 이정모(국립과천과학관장), 이창용(미술사강사)
- ◇ 문 의 : 안산시 감골도서관(031-481-3704)

제13기 경기도 민원모니터 모집

-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
- ◇ 신청기간 : 2020. 8. 3. ~ 9. 15.
-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 활동내용 : 도정 모니터링, 제도 개선, 미담사례 제보
- ◇ 활동혜택 : 보상금 지급 및 활동 우수자 도지사 표창 등
- ◇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action2@gg.go.kr)
- ◇ 문 의 : 경기도청 민원실(031-8008-2983)

9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독〉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나는 대부도에서 나고 자란 청포도에요. 다른 포도 친구들보다 단단하고 아삭해요! 씹을수록 망고 같은 향이 나요. 9월 경기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샤인머스켓 ② 캠벨얼리 ③ 베니바라드



Q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에서 1004개의 예쁜 풍경(風馨)과 탁 트인 갯벌, 황홀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① 바다너울원 ② 암석원 ③ 상상전망대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능)

응모기간 : 9월 22일까지 7월 호 정답 : ②, ③

등록금 반값 지원!

전국에서 안산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2020년 2학기 반값지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지원금액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X 50%

접수기간 | 2020년 8월 18일(화) ~ 11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안내사항 |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문 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www.ansanfys.or.kr